

정교선, 현대홈쇼핑 회장 승진... ‘신성장동력 확보’ 매진

HYUNDAI

현대백화점그룹 정기 임원인사 승진 29명, 전보 31명 등 총 60명

김창섭·김성일·이희준 부사장 승진 박장서, 면세점 대표이사로 내정

정교선 현대백화점그룹 부회장 겸 현대홈쇼핑 대표이사 부회장이 14년 만에 현대홈쇼핑 대표이사 회장으로 승진한다.

현대백화점그룹은 31일 승진 29명, 전보 31명 등 총 60명에 대한 2025년 정기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인사 폭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계열사별로 보면, 지난 2009년부터 현대홈쇼핑 대표이사를 맡아오다 2012년 부회장으로 승진한 정교선 현대홈쇼핑 대표이사 부회장이 14년만에 현대홈쇼핑 대표이사 회장으로 승진한다.

다만, 그룹 차원에서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현대백화점그룹 부회장직을 유지하면서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을 보좌하며, 단일 지주회사 체제의 지배구조를 기반으로 그룹 경영 전반을 함께 이끌어 나갈 예정이다.

즉, 지난해 11월 출범한 현대백화점 그룹 단일 지주회사인 현대지에프홀딩스를 중심으로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 정교선 현대백화점그룹 부회장이 공동경영을 이어가며, 현대홈쇼핑 대표이사로서의 책임경영을 강화하는 차원으로

정교선 현대백화점그룹 부회장 겸 현대홈쇼핑 대표이사 회장. /현대백화점

정교선 현대백화점그룹 부회장 겸 현대홈쇼핑 대표이사 회장. /현대백화점

에서 정교선 현대홈쇼핑 대표이사 부회장이 현대홈쇼핑 대표이사 회장으로 승진하게 된 것이다.

정교선 부회장이 현대홈쇼핑 회장으로 승진하게 된 배경에는 한때 캐시카우로 불리던 홈쇼핑의 업황 악화와 무관치 않다. 악화일로를 걷는 국내 홈쇼핑 시장 환경하에서 현대홈쇼핑의 성장 둔화도 지속되어 기존 사업의 역량 강화와 신성장동력 확보가 중요해진 상황에서, 2009년부터 16년간 현대홈쇼핑 대표이사를 맡아온 정교선 부회장의 경력과 전문성에서 발현되는 통찰력과 추진력 같은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대홈쇼핑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전문 경영인은 중·단기적 사업 전략에 대한 계획 및 추진에 나서고, 정교선 현대백화점그룹 부회장 겸 현대홈쇼핑 대표이사 회장은 그룹 차원의 신성장동력 확보는 물론 홈쇼핑의 장기적 성장전략 구상 및 추진에 매진해 나갈 계획이다.

현대백화점의 경우 이번 인사에서 김창섭 영업본부장이 부사장으로 승진했

다. 김창섭 부사장은 사업개발담당 임원으로서 더현대 서울 출점을 주도했고, 더현대 서울 점장 재직시 더현대 서울의 위상을 끌어올렸으며, 최근 부산에 신개념 리테일 공간인 커넥트현대를 성공적으로 오픈하기도 했다.

ICT전문기업인 현대퓨처넷을 맡고 있는 김성일 대표도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그룹 차원의 디지털 전환을 주도하고 있고, 현대IT&E 합병 이후 조직 안정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현대바이오랜드 이희준 대표 또한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인 네슬레 헬스사이언스와의 협업을 통해 건식 사업을 확대하는 등 헬스케어 사업을 확장하는 성과를 거둬 이번 인사에서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현대면세점의 경우 박장서 영업본부장을 대표이사로 내정했다. 박장서 신임대표는 1992년부터 33년째 국내 주요 면세점에서 면세점 영업을 담당해 온 면세사업분야 전문가로 2020년 현대면세점에 입사한 이후 영업본부장을 맡아왔다.

종합 전자재 기업인 현대L&C 신임

대표에는 이진원 현대그린푸드 푸드서비스사업본부장이 내정됐다. 이진원 대표의 현대백화점, 현대리마트, 현대그린푸드에서 재경총괄을 담당하며 경영능력을 검증 받았고, B2C사업은 물론 B2B사업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풍부한 경험이 장점으로 꼽힌다.

글로벌 매트리스 전문 기업인 지누스에는 현대L&C 대표를 맡고 있는 정백재 대표가 내정됐다. 정백재 대표는 글로벌 비즈니스를 주력으로 하는 현대에버다임의 재경실장과 현대L&C의 경영 전략본부장 및 대표를 역임했으며, 글로벌 시장에 대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누스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적임자로 판단돼 발탁됐다.

이번에 토털 복지 솔루션 기업인 현대이시웰 대표로 내정된 박종선 대표는 현대홈쇼핑 온라인사업부와 영업전략 담당을 거쳐 2021년 현대이시웰로 자리를 옮겨 상품운영본부장을 맡다가 대표이사로 승진한 사례다. 박 대표는 온라인물 유통과 마케팅 부문에서 뛰어난 능력을 인정받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동원그룹, 외부인재 영입·여성 CEO 발탁

계열사 임원인사 단행 시스템즈 2차전지 대표에 정용욱 소재사업부문 총괄임원에 신동만 동원CNS 대표에 첫 여성 이영란

동원그룹이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갖춘 인재를 영입·발탁해 각각 계열사 대표이사와 총괄임원으로 선임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대표이사를 선임한 계열사는 동원시스템즈와 동원CNS다.

먼저 동원시스템즈는 신사업의 핵심인 2차전지사업부문 대표이사에 LG에너지솔루션 출신의 정용욱 사장(사진)을 선임했다. 정용욱 신임 대표는 LG에



너지솔루션에서 2차전지 해외영업과 마케팅을 총괄했으며, 폴란드 생산법인장과 유럽지역 대표를 지냈다. 정 신임 대표는 향후 2차전지용 알루미늄 양극박과 배터리캔, 셀 파우치 제조를 총괄하며 동원시스템즈의 신사업에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와 함께 동원시스템즈의 연포장제·산업용 필름 등을 생산하는 소재사업 부문에는 글로벌 화학기업인 듀폰코리아 대표이사 출신의 신동만 부사장을 총괄임원으로 선임했다.

이와 더불어, 영업현장의 판매직원

들을 밀착 관리하는 계열사인 동원CNS는 동원그룹 최초로 여성 대표이사를 선임했다. 이영란 신임 대표이사는 1992년, 동원그룹에 신입사원으로 입사해 유통영업, 판촉교육 등을 총괄한 현장 전문가다. 동원그룹 임직원들 사이에서 포용의 리더십을 인정받으며 이번

에 중책을 맡게 됐다. 동원그룹 관계자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일환으로 오랜 현장 경험을 갖춘 베테랑을 발탁하고 외부의 전문가를 영입해 대표이사로 임명했다”며 “앞으로도 업무 전문성·포용성을 핵심 가치로 삼고 다양한 인재를 영입해 사업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빛나 기자

코코이찌방야, 송탄 신장점 ‘신장개업’

평택국제중앙시장 근처 위치

카레전문점 코코이찌방야가 지난 1일 ‘송탄 신장점’을 새롭게 문을 열었다고 31일 밝혔다.

평택국제중앙시장 근처에 위치한 코코이찌방야 송탄 신장점은 약 65평 공간으로 마련됐다. 매장 인근은 미군공군부대가 있는 특수 상권으로, 다양한 나라의 음식점과 상점들이 밀집해 있다. 거주 인구 및 직장인과 함께 외국인들의 방문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해당 매장은 평택 험프리스점에 이어 선보이는 평택 특수 상권 내 두 번째 코코이찌방야 매장이다. 송탄 신장점의 이코원 점주는 코코이찌방야 평택 험프리스점에서 약 3년간 점장으로 근무를 하면서 코코이찌방야에 대한 관심으로 창업하게 된 경우다.



지난 1일 경기 평택 특수 상권에 선보여진 카레전문점 코코이찌방야 송탄 신장점 내부는 68석으로 꾸며졌다. /농심

코코이찌방야는 송탄 신장점이 평택 험프리스점에서 쌓은 운영 노하우를 기반으로 한 안정적인 운영을 이뤄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코원 점주는 지역 상권과 고객층에 대한 이해도가 누구보다 높아 성공적으로 점포를 정착시킬 것이라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이청하 기자 mlee236@

동국제약 ‘센텔리안24’ 마데카 분말 티트리 에이씨

동국제약이 더마 화장품 브랜드 센텔리안24에서 신제품 ‘마데카 분말 티트리 에이씨’를 출시했다고 31일 밝혔다.

‘마데카 분말 티트리 에이씨’는 바르는 분말 형태의 제품으로, 동국제약 독자 기술력으로 개발한 ‘하이퍼-테카티트리’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이 성분은 센텔라아시아티카 정량추출물, 티트리 오일, 알란토인 등 3가지를 최적의 비율로 배합해 모공 및 피지 고민에 효과를 갖췄다.

동국제약에 따르면 이번 신제품은 인체적용시험에서 1회 사용만으로 모공 피지를 즉각적으로 83% 개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마데카 분말 티트리 에이씨’는 알란토 캡슐레이션 기술이 적용된 신개념 제형이 특징이다. /이청하 기자

롯데온, 연중 가장 강력한 ‘쇼핑대전’ 돌입

퍼스트 먼데이 블랙라벨 등 행사 진행

유통업계가 ‘롯데온’을 필두로 11월을 맞아 본격적인 연말 행사에 돌입했다. 롯데쇼핑의 e커머스플랫폼 롯데온은 지난 14일부터 23일까지 진행한 ‘롯데온세상 쇼핑 페스타(온쇼페)’로 연말 쇼핑 대전의 포문을 열었다고 31일 밝혔다.

특히 롯데온은 이번 행사 실적이 전년 행사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하며 흥행에 성공했다고 평가했다. 고물가와 침체된 소비시장 분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롯데 계열사 상품 위주로 할인폭을 크게 높인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롯데온은 롯데의 대표적인 e커머스 플랫폼으로서 유통계열사뿐 아니라 타 계열사들과도 유기적으로 순환하는 연결형 게이트웨이 역할에 더욱 집중한다는 전략이다.

롯데온은 연말 쇼핑 행사의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해 11월 1일부터 4일까지 ‘퍼스트 먼데이 블랙라벨’ 행사를 진행하며, 11월 6일까지는 ‘얼리 윈터 페스타’도 진행한다.

‘퍼스트 먼데이’는 롯데온에서 매월 첫번째 월요일에 진행되는 할인 행사다. 11월은 유통업계 쇼핑대전이 있는 달인 만큼, 연중 가장 강력한 혜택의 퍼스트 먼데이 블랙라벨 행사가 마련한다. 롯데온을 한 번도 이용해본 적 없는 고객은 첫구매 맞춤 쿠폰팩을 다운받을 수 있으며, 전 방문고객은 롯데카드로 결제시 최대 1만원까지 할인 받을 수 있는 스페셜 쿠폰도 챙길 수 있다.

‘얼리 윈터 페스타’에서는 24년 F/W 신상품과 지난 시즌 인기 베스트 상품을 최대 50%까지 할인된 가격에 만나 볼 수 있는 것이 핵심이다.

/최빛나 기자

대웅제약-셀트리온 ‘CT-P41’ 공동판매

‘골다공증 치료제’ 내년 상반기 출시

대웅제약은 셀트리온제약과 골다공증 치료제 프롤리아(성분명: 데노수맙) 바이오시밀러 ‘CT-P41’ 공동판매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CT-P41은 셀트리온이 개발한 골 질환 분야 파이프라인으로 오는 2025년 상반기 출시될 예정이다.

셀트리온은 유럽 4개국에서 폐경 후 골다공증이 있는 여성 환자 479명을 대상으로 CT-P41 글로벌 임상 3상을 진행해 CT-P41과 오리지널 의약품 간 유효성 및 안전성을 입증한 바 있다.

양사는 셀트리온이 구축한 과학적 임



지난 30일 이창재 대웅제약 대표(오른쪽)와 유영호 셀트리온제약 대표가 골다공증 치료제 ‘CT-P41’ 공동판매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대웅제약

상 결과와 대웅제약의 강력한 영업·마케팅 역량이 시너지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청하 기자